



안·전·문·화·캠페인

안전은 생명입니다. 안전은 행복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우리 모두 참여하여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합시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가정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등 사회적 전반에 걸쳐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사항 등을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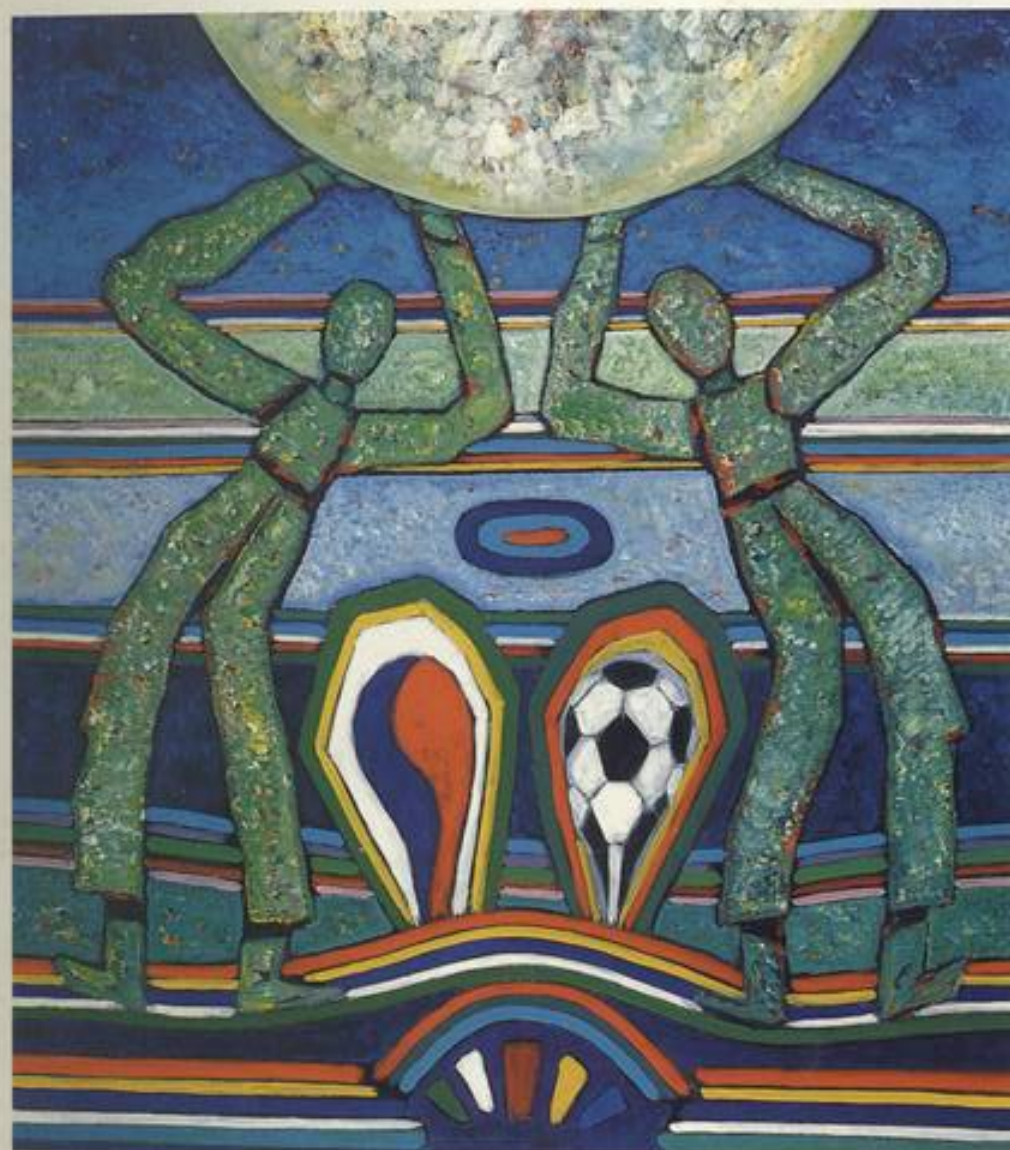
안전문화추진위원회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본부

월간여성5월호(통권340호) / 1996년5월10일(매월10일) 발행 / 1964년6월13일 등록(사) 라-7 (우편번호 140-013)

여성



특·집
15대 국회와 여성

96·5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미원의 첨단발효기술이 탄생시킨 저칼로리 감미료 “그린스위트”



세계수준의 발효기술로 만든 건강감미료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당질이 아니고, 아미노산계 감미료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어 비만이나 당뇨, 충치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다이어트하는 젊은 여성들도 살렘 염려없이 단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발효법을 이용한 제조기술

그린스위트는 단백질 식품에 흔히 존재하는 아미노산 성분인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을 결합시킨 아미노산계 감미료입니다. 미원은 그린스위트의 원료인 페닐알라닌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수율 대량생산 기술특허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지난 '93년 11월 국내 식품업계

최초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2를 획득했습니다.

자연의 달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과일, 야채, 우유 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만든 ‘아스파탐’이 주성분이므로 천연식품과 동일하게 소화되며 뒷맛이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그린스위트

- 가정의 설탕 대용품
- 커피, 우유, 국산차, 과일화채, 각종 요리시 설탕 대용으로
- 롤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 과자, 캔디, 껌 등의 제과류
- 캔커피, 커피믹스, 코코아믹스 등의 분말 다류
- 아이스크림, 샤벳, 푸딩, 유산균 음료 등의 디저트식품
- 당의정, 씹어먹는 의약품, 시럽



MIWON (주)미원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월간 여성

월간여성 5월 통권340호

목 적 :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하영애

특집/ 15대 국회와 여성

6 특집/ 15대 국회와 여성

4.11 총선을 여성의 잣대로 평가한다/이연숙

10 특집/ 15대 국회와 여성

아쉬움 속 '결실' 맺은 4.11 총선/황금희

14 특집/ 15대 국회와 여성

15대 국회에 바란다/손봉숙, 김열림, 백명희, 최영희, 최영애

20 특집/ 15대 국회와 여성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프로필

27 여성관련통계

역대 여성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28 회원단체를 찾아서

한국식생활 개발연구회

30 해외여성통신

유네스코, 여성과학자 역할 확대 촉구/이영남

34 국제회의참가

세계여협 집행위원회 회의를 다녀와서/강경화

37 여성학 지상강좌

여성과 환경/김양희

42 특별기고

정보화사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여호영

46 여성계동향/이구경

49 협의회 소식

51 우리들의 광장

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하영애 (한중여성교류협회 회장, 김희대 교수)

근간에 TV드라마에서 많은 인기를 끈 중국 최초의 여황제 「측천무후」를 보면서 중국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뿐만 아니라 통치권력이란 측면에서 남다른 생각을 갖게했다. 오늘날 선거-투표를 실시 하였다면 과연 여자황제는 탄생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선거는 하나의 조직이 그 규정에 의해 부분 혹은 전체성원을 선택하여 한사람 혹은 소수인을 그조직의 어떤 권위직위에 충원시켜 일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명·세습·추첨과는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구집권자(舊執權者)가 신집권자에게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해 주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바로 군주전제정치나, 귀족과두정치, 혹은 세습정치와는 다른 민주국가의 특징인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크고 작은 선거를 치루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치기구 역시 계속적인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더욱 새롭게 개선되어야 하고 민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정치란 선거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은 유능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통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세미나가 개최되고 여성의석 할당제에 대해 끊임없는 요구를 한 덕분에 95. 6. 27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72명의 여성의원들이 당선되어 15.8%를 나타내었다. 이는 '91년 실시한 지방의원선거에서 여성이 기초, 광역 공히 0.9%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증가현상을 보였다.

또한 4월 11일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에겐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게한 선거였다. 총 299명 의원중 여성 의원은 전국구 7명과 지역구 2명으로 9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제헌 국회에서 15대까지 역대 여성국회의원중 제9대(1973. 2. 27선거) 유정희 국회의원의 12명이래 가장 많은 여성의원 숫자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구 여성의원 2명 탄생의 중요성이다. 10여년 이상 전국구 여성국회의원만 있고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이 한사람도 없었던 지역구 여성의원 전무시대의 한국여성 정치사에 이 두 여성의원들의 당선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선거와 공천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최소한 40%로 선출해야 한다」는 노르웨이는 35~40%의 여성의원들이 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북유럽의 룩셈부르크는 여성의원 50%, 덴마크는 37%, 대만은 10~25% 까지, 중국 역시 최소 10%를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불과 3%~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정치중 빼 수 없는 조건이며 민주정치제도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비록 선거를 행사하는 것이 곧 바로 민주정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선거를 통하여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의회에 여성이 참여해야만 인구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심성을 전달할 수 있으며, 진정한 정치평등인 양성평등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특집

15대 국회와 여성

4.11 총선을 여성의 잣대로 평가한다

이연숙 (본회 회장)

제15대 국회의원선거결과 여성의원은 역대 여성 당선자에 비해 여성운동 전문가와 활동가로서 당선 9명을 선출해 냈으며 시작을 3% 참여율로 하여 늘려 나갈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되어 보다 큰 여성의 15대 국회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십여년만에 여성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배출하고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각각 3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1명의 전국구 당선자를 냄으로서 총 9명의 여성의원이 참여하는 국회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찌 보면 여성계의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진 여성의원 숫자여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도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애써 긍정적인 면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여성 당선자가 많아지고 강해졌다.

14대 국회는 개원 때에 지역구 여성의원 전무, 전국구 4명(주양자, 강선영, 이우정, 강부자 의원)으로 출발해서 현경자 의원이 남편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전임 기간 동안 참여했고, 정옥순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막바지에 전국구에서 전임자를 승계하여 짧은 기간 동안만 참여하여 14대 종료 직전에 7명으로 마감했다.

따라서 14대 국회는 여성의 참여율 1.3%로 시작하여 2.3%로 끝을 맺어 후하게 계산해도 평균 2%의 참여율로 국제 평균치 11%에 비해 9% 이상, 북유럽의 39.7%에 비해 37%가 넘는 격차로 뒤떨어져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1~13위의 위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여성 정치 참여 순위는 156개 IPU

회원국 중 151위를 기록해 세계 무대에서 체면이 말이 아닌 상태로 비춰졌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계가 2당 체제에서 4당 체제로 개편되면서 여성 참여에 악재로 작용하여 정치 환경이 여성에게 크게 불리했으나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등 결속된 여성계의 힘을 모아 세력화를 창출함으로써 각당이 고위직에 여성을 영입하고 참신한 여성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지역구에 20명의 공천, 비공천 출마자를 나서게 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역대 여성 당선자에 비해 여성운동 전문가와 활동가로서 당선 9명을 선출해 냈으며 시작을 3% 참여율로 하여 늘려 나갈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되어 보다 큰 여성의 15대 국회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5대 국회 여성 당선자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신한국당에서는 지역구 진출에 실패했지만 전국구를 통해 언론인 출신으로 여성개발원장과 정부 제2장관을 역임한 권영자 박사와 전문직으로 약국 경영인이고 전북 여약사회 회장과 전북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인 오양순씨를, 그리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영선씨를 내세웠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지역구에서 판사 출신 추미애씨를 당선시켜 개가를 올리고 전국구 1번에 교육

전문가이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여성 전문가 정희경 박사를 영입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북경세계여성대회 준비를 위한 한국여성NGO위원회 공동대표이던 여성 운동가 신낙균씨와 일찍이 정계에 투신하여 지역구에 도전해 오던 당무위원 한영애씨를 당선 안정권에 올려 당선시켰다.

민주당은 막판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그리고 북경세계여성대회 준비를 위한 한국여성NGO위원회 공동대표 이미경씨를 전국구 2번에 추대하여 당선시켰다.

당선자중 가장 주목할 사람은 공천에서 밀려나 무소속으로 경선하여 5,000표 이상의 표 차로 경주 을구에서 당당히 승리한 지역구 당선자 임진출씨를 들 수 있다. 임진출씨의 패거리는 남성 정치가들의 구태의연한 여성관을 바꾸는데 큰 몫을 해냈다.

앞으로 15대국회 임기 내에 당선 가능한 전국구 후보자 중에서 순위가 가까운 몇 명의 경우도 고 무적이다. 신한국당의 김정숙 박사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소장이다. 자유민주연합의 주양자씨는 14대대 여성 특위 간사를 역임했고 민주당의 오현주씨는 연극인으로서 국제, 국내에서 일가를 이룬 적능 베테랑이다.

예측하건대 제15대 국회는 폐회 전에 4% 이상의 여성 참여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겨 준다. 결국 적은 수이지만 14대에 비해 양적으로는 50% 상승으로 시작, 100% 증가로 막을 내릴 것이고 질적으로는 1당 100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2. 이번 선거는 여성 표의 의미가 두드러졌다.

각 정당은 여성 표를 의식하여 선거전 대 여성 공약에 힘을 기울였다. 새정치국민회의를 선두로 민주당 여성국도 범 여성계의 의견을 묻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수립하는 기회를 가져 여성정책 공약이 구체화됐다. 여성계는 여성 관련 공약을 각 정당에 보냈고, 여성 정책 지지자의 선택을 유권자에게 독려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집권당 공약은 여성계의 계속되는 관심 속에 임기 중에 그 대부분이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과 정당이 여성에게 약속하는 정책이 표심을 움직이는 변화가 보이는 선거였다고 관찰했다.

예를 들면 한 두 사람의 예외를 제하고 지난 14대 국회 여성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남성 위원들이 대부분 재선됐다. 여성특위에 참가 회담자가 많아서 경합이 치열했던 이유가 들어난 셈이다. 재선이 대단히 어려웠던 이번 선거에서 그들의 재선은 여성 표에 힘입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개인으로 볼 때 세추위에서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를 제정 발표한 이상희 당선자, 내무 장관 재임시 여성의 공직승진을 약속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던 최형우 당선자, 앞서가는 생각으로 여성계 행사의 연사로 인기있는 이명박 당선자, 여성할당제도입을 위해 지방 선거에 비례대표제 추진에 앞장섰던 김운환 당선자, 총무처장관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실시를 연초부터 단행시켰던 김기재 당선자, 여성관련 학술 세미나의 사회자나 발제자로 자주 초청 받는 유재건 당선자, 공천 과정에서 여성 당원의 지지 시위까지 받으며 등장한 오세웅 당선자, 여성 당원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방의회 여성 당선을 도출해 낸 김덕룡 당선자, 보건사회부 장관 재직시 여성차별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 기용에 힘쓴 서상목 당선자, 공화당 정책 의장으로 첫번째 가족법 개정을 유도했던 박준규 당선자, 유일한 여성 시장을 배출한 손학규 당선자등 여성계에 관심을 가지고 성의를 표해 왔던 인사들의 당선은 여성 표가 의미를 실어 주었다고 생각된다.

3.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무너지는 선거였다.

경주올구 임진출 당선자는 여성의 한계 때문에 보수적인 경주에서는 어렵다는 이유가 공천에서 밀려난 원인이었다고 했는데 남, 여성 유권자는 여성이라서 기피하는 것도, 여성이 여성을 안 찍는 것도 아니라 자격이 있으면 지역민의 여망을 설어서 당선시켜 준다는 교훈을 남겼다.

임진출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 어렵다던 보수 성향의 고도를 설득하여 네번씩이나 실패하고서도 다시 도전하여 연약한 여성의 한계성을 거뜬히 극복하고 성공했다. 또 서울의 광진을구에서 뽑힌 주미에 당선자는 정당 실력자의 의지와 당사자의 노력의 결정으로 드러났다. 공천한 정당이 바탕을 굳건히 다져 주고 출마자의 자격과 연동이 출중해서 민심을 끌어 잡을 수만 있다면 여성이라서 낙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다.

여성 표가 합세해서 지난 지방 선거에서도 여성 시장을 냈고 많은 여성 출마자들이 근소한 차로 차점에 다가간 것을 보더라도 이제부터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가 아니라 진정한 대변자의 자질인 양심과 용기 그리고 봉사

정신을 공천과 당선의 잣대로 삼아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국가의 균형잡힌 발전과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룩한 한국 위상에 걸맞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도 극도로 낙후된 여성의 정치 참여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근거로 모든 정당과 정치 지도자는 진지하게 여성의 참여를 정책화하고 구체적으로 목표율을 정해서 세계여성행동강령에 정해진 어느 한 성도 70%를 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성의 30% 참여를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다져져야 할 것이다. 299명 의석 중에 90명 이상의 여성참여가 가능하도록 제15대 당선자들의 의지가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정당별로 자기 당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 자격있는 참신한 여성을 공천하고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이번 선거에서 증명됐다. 이번 선거에 여성후보자가 20명이 출마했고 그 중의 절반은 공천없이 무소속으로 나선 것을 보면 여성의 참여자 수나 용기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정당이 여성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여성 자원 봉사자의 정치활동 공로는 차타가 인정해야 한다. 여성이 표를 모으고 표몰이를 조직화하면서 정치를 배웠다. 정당과 정치인은 여



유권자의 자존심이 계속 지켜지고 정치인이 유권자의 판단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지하게 유권자가 바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곧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고 다음 선거부터 여성계와 정당들이 상호 노력하여 뜻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성을 선거때마다 이용만 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을 정치 참여로 연결시켜야 한다.

4. 이번 선거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에게 숙제를 안겨 주고 유권자만의 승리로 끝났다.

유권자의 선택은 남, 여성을 따지지 않고 정직성, 참신성과 능력있는 인재를 골랐다. 그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이었다. 여성 표의 참여없이는 그 훌륭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남성의 표는 이미 사회 조직에 맞물려 동향, 동창, 가문, 동료, 협력 집단 등 기성 네트워크에 보다 많이 실려 있다. 따라서 진정한 대표자를 고르기에는 여성 표만큼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과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보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삶을 추구한다. 세계적으로 여성은 부패 성향이 적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그리고 부모 형제가 더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바라면서 죄를 피하고 복을 지으며 살아 가려는 여성의 본성은 항상 환경정화적인 요인을 가지고 산다.

남성이 대부분 생계를 위한 직업에 묶여 있는 것에 비해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받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개발에 힘을 보탬 수 있다. 앞으로의 선거는 보다 많은 고급 여성 인력을 참여 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 환경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선거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법 위반을 엄벌해서 방법자가 재기할 여건을 배제하며 급전 수수의 관행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여건이 일상화되면 여성 참여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서서 거리낌없는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문제점들은 일단 개선 과제로 제쳐놓고

긍정적인 면을 점검하면서 민주 시민의 역량이 발전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성이 관객에서 주역으로,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모하는 확실한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다.

여성 참여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약속하는 남성 정치가의 증가세와 그들의 당선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의 자존심이 계속 지켜지고 정치인이 유권자의 판단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지하게 유권자가 바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곧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고 다음 선거부터 여성계와 정당들이 상호 노력하여 뜻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세계적인 여론은 우리가 전임 대통령을 치죄할 수 있는 민주 역량을 발휘했다고 부러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실공사나 부정직에서 파생됐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은 유권자가 올바른 투표를 통해 좋은 선량을 뽑아서 정치를 하게 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가 노력하면 머지않아 세계적으로도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굳건히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어느새 유권자가 정치의 방향을 그려 주는, 그래서 정치권이 국민의 바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 15대 국회의 달라진 새얼굴과 여성 참여자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아쉬움 속 '결실' 맺은 4.11 총선

황금희 (여성신문 기자)

15대 여성의원 총 수 9명은 전체 3%(2백99명)에 불과하지만 여성의정사에서 보면 역대 최대 수치다. 무엇보다 12대 김정례, 김옥선의원 이후 대가 끊기다 94년 8.2보궐선거를 통해 14대 임기 중반에 등원한 현경자의원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온 지역구 여성의원석을 임진출, 추미애 씨가 당선됨으로써 맥을 잇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임진출, 추미애 씨의 패거리는 그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 온 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한단계 올려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4.11 총선은 성공적이다. 4.11 총선을 통해 15대 국회 등원에 성공한 여성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해 총 9명이다.국민회의의 추미애 씨(37, 서울 광진을)와 무소속의 임진출 씨(54, 경주을)가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15대 의원이 됐고,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에서 배출된 7명의 전국구 여성의원들이 15대에 합류하게 됐다.

15대 여성의원 총 수 9명은 전체 3%(2백99명)에 불과하지만 여성의정사에서 보면 역대 최대 수치다. 9대에 1기와 2기 유정희 의원으로 각각 9명, 6명의 여성의원들이 활동한 바 있지만 단일기수의 여성의원 수로는 가장 많다. 14대 여성의원 수 6명(전체 2%)에서도 3명이 늘었다. 무엇보다 12대 김정례, 김옥선의원 이후 대가 끊기다 94년 8.2보궐선거를 통해 14대 임기 중반에 등원한 현경자 의원(자민련)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온 지역구 여성의원석을 임진출, 추미애 씨가 당선됨으로써 맥을 잇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임진출, 추미애 씨의 패거리는 그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 온 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한단계 올려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구 당선 개가

10대 총선에서 시작해서 출마인생 17년 만에 당선 영광을 안은 임진출 의원은 "아무리 극심한 여성편견도 노력 앞에선 무릎을 꿇는다"는 그 자신의 말처럼 선거판에서 여성들이 뛰어넘지 못할 난관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 14대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줄곧 경주시를 지켜 온 그는 신한국당의 공천에서 탈락하는 설움을 겪었다. 94년 8.2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2백50표 차로 낙선하며 '당선보다 더 값진 선거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은 그는 '이번에는 틀림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천탈락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임 의원 보다 지역 유권자들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임 의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함께 부당한 공천탈락이라는 지역 정서가 형성되면서 신한국당, 자민련 후보들을 모두 물리치고 37%의 득표로 당선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그의 승리가 더욱 값진 것도 그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의 당선은 또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15대 주목받는 정치신인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추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등에서 재직한 법조인 출신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다. 연령으로 보면 지난 67년 7대 선거에서 33세에 당선된 김옥선 전의원의 뒤를 이은 연소자 당선자이기도 하다. 11대, 12대, 13대, 14대 등에서 활약한

여성의원들의 평균연령이 46.3세, 53.4세, 51.8세, 62세 등인 것을 고려하면 추 의원의 등원은 획기적인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역할비중이 높아진 13대 이후 그간 국회 내에서 여성관련법안에 제대로 심의, 제정되지 못할 때마다 아쉬움으로 지적되던 것이 법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사람도 없다는 점이었다. 법사위에 상정된 여성관련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여성위원이 소속 위원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다.

여성문제 전문가 전국구 진출

추 의원의 등원으로 그동안 여성의원들이 보사위, 행정위 등에 국한돼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여성관련법의 제정작업이 15대에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다. 추 씨와 함께 신한국당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게 된 김영선 씨(36, 신한국당 부대변인)도 변호사여서 30대 여성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다.

지역구 여성의원 배출과 함께 15대 총선의 긍정적인 결과는 여성문제 전문가 출신의 여성들이 전국구를 통해 과거에 비해 대거 등원하게 됐다는 점이다. 신한국당에서 권영자 전 정부2장관(59), 오양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51), 김영선 부대변인(36) 등 3명이, 국민회의에서는 정희경 전 선대위 공동의장(65), 신낙균 부총재(56), 한영애 당무위원(54) 등 3명이 당선됐고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전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45)가 15대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들 중 신한국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권영자 전 정부2장관이나 국민회의의 신낙균 부총재, 민주당의 이미경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한국여성계를 이끌어 온 여성계의 대들보들이다. 이들은 행정기관, 여성단체, 정당 등에서 골고루 역량을 쌓아온 인재들로 15대 국회에서 심도있는 여성관련 의정활동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사위, 노동, 환경위, 교육위, 법사위 등 이들 여성의원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도 다양해, 그간 여성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집중 분포됨으로써 빚어진 문제점들을 이번 15대에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후보 기근 여전

그러나 이번 총선은 성과에 못지 않게 부진한 면도 없지 않았다. 94년 6.27 지자제 선거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등을 통해 최고조에 이른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여성계의 열망에 비하면 오히려 성과보다 실패가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여성출마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 지역구 의원에 대한 바람과 요구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4.11 총선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는 총 20명에 불과했다. 전체 1천3백89명의 1.4%였다. 이 중 신한국당(1명), 국민회의(6명), 민주당(1명), 자민련(2명)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10명,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10명이었다.

신한국당에서는 서울 도봉갑구에서 양경자씨(56)가 출마했으며 국민회의는 서울에서 광진을구에 추미애(37), 동대문갑에 김희선씨(53)가 출마했다. 경남에서는 산천·함양의 정막선씨(63), 양산시의 이미애씨(28), 경기도에서 평택시의 이미경씨(38) 역시 국민회의의 간판을 달고 이번 총선에 출마했으며 충남에서는 청양·홍성에서 이혜숙씨(49)가 국민회의의 후보로 출마해 국민회의 여성후보는 총 6명이었다. 이들 중 당선자는 추미애 의원 한명이다. 민주당에서는 경북 김천에서 박연옥씨(59)가 출마했고, 자민련에서는 서울에서 종로구에 김을동씨(50), 마포갑의 고순례씨(32)가 출마했다.

군소정당의 후보로는 서울 서대문을구에서 장영선씨(36, 21세기한독당), 중구에서 김명주씨(66, 대한민주당), 부산 남구에서 서이남씨(53, 대한민주당)가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이번에 패거리를 올린

임진출 의원이 경주시에서 출마했고, 서울 도봉을 구에서 최순자씨(42), 강남갑구에서 성명선씨(47), 경기도 과천·의왕시에서 이희숙씨(55), 부산 사상 을구에서 박정진씨(62), 대구 달서갑구에서 임갑수 씨(43), 경남 진주시갑에서 안정원씨(51)가 출마 했다.

총선 여성출마자 총 20명

4.11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자 20명은 92년 3월 24일 치러진 14대 총선 당시 출마한 여성후보자 총수 19명에 비해 불과 1명이 늘어난 것. 그간 여성정치 세력화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여성정치인 배출의 중요성이 충분히 여론화됐다고 여겨져 왔으나 실상은 4년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인 셈이다.

당선가능권에 여성공천 비율을 늘려달라는 여성계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한국당은 서울 도봉갑구(양경자 후보)에 한명을 주는 데 그쳤고, 국민회의는 총 6명의 여성 후보 중 서울에 2곳(광진을 추미애, 동대문갑 김희선)을 주고, 나머지는 당선가능권에서 먼 경남에 2명, 충남에 1명을 공천했다. 기타 자민련이나 민주당 등에서도 여성 후보에게는 당선권과 동떨어진 지역을 '자리 안배' 차원에서 할당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경자, 김희선 후보는 당선자와 3~4% 차이로 낙선하는 선전을 했지만 좀 더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게 했다.

더군다나 국민회의 텃밭인 전남 화순에 공천을 받았던 한영애 씨는 지역이 통합되면서 상대편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론이 일자 자신의 지구당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 전국구 의원으로 15대에 등극하기는 했지만 13, 14대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며 오랫동안 선거경험을 쌓아온 그가 당선가능권에 공천을 받기가 무섭게 다시 희생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여성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당, 여성할당에 인식

지역구 공천에 인식했던 것과 함께 정당은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계가 '전국구 의석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해 달라'는 여성계의 목청도 보기 좋게 묵살했다. 지난 6.27 선거 때 비례대표직에 여성을 신한국당이 50%, 민주당이 30%, 자민련이 10% 할당했던 것을 보면 무리한 요청이 아니었다. 국회의원회가 당선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인 23%(총 13명 중 3명)를 할당했고, 신한국당은 그에 못미치는 17%(전체 18명 중 3명), 민주당이 17%(전체 6명 중 1명)를 할당하는 데 그쳤다. 자민련은 여성의원을 한 사람도 배출하지 않았다.

정당의 여성 후보자 배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손봉숙 소장은 "지명도 있는 여성을 영입하려만 하지 말고 정당 내에서 꾸준히 여성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입해온 여성에게 공천을 준다하더라도 지역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당선되기는 힘들다. 뿐만아니라 당에서 오랫동안 수고한 여성들은 푸대접을 하면서 영입인사만 우대하는 풍토에서는 여성들이 정당활동에 힘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 소장은 "정당을 통한 공천할당제도 당에서 기여한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여성들의 정당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한다.

여성유권자 정치참여 저조

여성계가 반성해야 할 점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당에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만큼 여성후보를 적극 추천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출마자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여성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여성계의 구호가 실천력을 겸비하지 못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여, 야 각 정당에서 여성후보공천을 요구하며 '공천만 주면 당선까지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가진 일련의 회동에서 '정당 후보는 물론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도 당선시켜야 한다', '여성정책을 제대로 실천할 친여성적인 남성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낸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각 정당의 여성공약을 토대로 '여성정책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해 여성유권자들이 친여성적인 여성정책을 내건 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모 여성단체는 결국 선거일에 입박해서도 계획된 자료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의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고 여성유권자의 소신있는 선택을 촉구하는 행동준칙을 선정해 여성단체별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불거진 또다른 문제점은 기대했던 것 만큼 여성유권자의 정치 의식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성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들의 공통적인 체험담이다.

재도전 의지 다진다

여전히 많은 수의 여성유권자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유세장과 연설회장에 동원되고 선거운동비를 받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런가하면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자신이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여성유권자도 부지기수였다. 여성유권자들이 신문도 안보고 TV뉴스 등을 전혀 안보는지 정치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어서 선거운동하기조차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후보자들도 많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은 "여성표만 모았어도 당선은 문제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모 후보는 "여성유권자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선거유세 때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성유권자가 막상 선거 당일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투표 장소가 멀다는 이유로 기권을 하는 예가 많았다는 것이다. 상대 남성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뛰는 여성유권자를 제외하고라도 표로 연결되지 않은 여성표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구태의연한 정치문화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현실도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되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지만 아직도 선거에는 막대한 돈이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건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헐뜯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폭력이 동원되고 선거협잡꾼들이 표를 빌미로 협박과 공갈을 일삼기도 한다.

이번 선거결과 중 가장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낙선한 여성후보들이 벌써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30~40대 젊은후보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주목을 받았던 이들은 "지역감정, 야권분열 등으로 변수가 많아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 선거에는 자신있다"며 "첫 출마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는 꼭 승리하겠다"고 다부진 의지를 피력한다. 개표 직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러 다니고 있다는 이들의 4년 후는 이번 총선이 남긴 과제가 얼마나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15대 국회에 바란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접차별의 개념과 직장내 성희롱의 규제를 포함하는 법개정을 1994년 11월 국회에 청원한 바 있으나, 국회 노동분과상임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경제불황 등에 의해 많은 여성들이 1차적으로 해고되거나 비정규직화되고 있어 여성의 고용불안이 최근 최대의 심각한 여성고용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15대 국회 특히 여성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이며 그 구체적인 방향은 남녀고용평등·모성보호·고용안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할 입법이나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1. 고용평등의 실현

▲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잠정적 여성고용우대조치의 확충, ▲ 공무원양성대학과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여성제한할당제 폐지, ▲ 간접차별의 금지, ▲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 육아휴

직제, 가족간호휴직제, 보육제도 등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조치확충, ▲ 여성고용분쟁처리제도의 실효화

2. 모성보호의 실현

▲ ILO의 모성보호협약에 상응하는 출산휴가일의 연장과 임신부보호, ▲ 납, 벤젠, 솔벤트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여성보호,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임신중의 건강검진휴가마련, ▲ 유급생리휴가제도의 개선(여성의 저임금체제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급생리휴가를 존치시키되, 청구요건을 부활시키거나 남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급건강휴가나 가정휴가로 전환 시킴)

3. 고용안정의 실현

▲ 정리해고, 직군구분 및 배치전환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여성차별 금지, ▲ 시간제, 임시직,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권 보장 및 모성보호 장치마련,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백명희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는 인재경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하게 된다. 쉽게 말해 교육에 미래를

걸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잘해낼 수 있는 학문분야나 직업분야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직업생활이나 일상의 삶에서도 섬세한 감각, 예술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어 진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여성전문인력이 나서야 할 때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많은 분야에서 이미 여성이 나서서 국제적인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전문인력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도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여성전문인력의 배출은 여성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내일을 결정하는 현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5대 국회에서는 첫째, 이러한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제반 정책을 결정하고 선도하는 각계 지도층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셋째, 대학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최고급 여성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에 가능한 많은 젊은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네째, 대학에서의 각종 행사에 여성전문인력들이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젊은 시절에 지도력과 자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진학, 취업, 장학금 혜택, 조교 발령 등 모든 면에서 남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가?

다섯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전문인력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지도자 내지 초·중·고등학교 교사특별연수가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여성의 진로 및 직종을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왔던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태도도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구이며 다가올 21세기가 여성의 창의력과 예술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 할 때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국회이길 바란다.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우리 여성의 건강은 그 여성이 처한 사회내에서의 지위, 위치에 의하여 반영되어진다. 과거의 전통적인

여성건강관리는 단지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거의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이와 더불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생하는 건강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및 극복에 관심을 두어 여성들도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의 발전과 함께 여성건강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건강관리체계의 권위주의적 입장에서 해방하여 인류평등주의 입장에서 환자와 전문가는 그들의 건강목적을 안녕에 두고 서로가 상호 기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비전문인과 전문인을 포함한 팀이 한 문제를 가지고 총체적인 입장을 지향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성건강과 보건의 범주를 크게 구별해서 보면, 첫째,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의 취약한 분야 즉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과 여성, 약물 오남용과 여성 등 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찾아내어 사회학적 제도를 시정한다.

셋째, 여성에게 행하고 있는 수술과 치료에 있어서 여성이 스스로 지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식함양과 함께 건강교육을 강조한다.(예: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자궁절제술의 30~50%가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주장, 갱년기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호르몬 대체요법 등)

네째, 여성의 건강문제가 단지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증의 우울증, 월경전 증후군, 갱년기 등에 대한 관심고조와 과학적 연구와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강화한다.

다섯째, 여성의 모성역할만 강조하여 여성의 성장발전보다는 생식기나 육아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당위성만 강조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 월경, 임신, 출산, 폐경들을 질환으로 분류하여 의료처치를 시행했으나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재파악하여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성에게 스트레스원이 되는 모든 면을 파악하여 여성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미래의 여성건강관리의 목표는 각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유형과 변화를 인식하게 하고 신체, 정신, 영혼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있다. 여성들의 생활양식과 건강관리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적으로 향상되면 21세기에는 여성건강이 새로운 요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영역에 관심을 갖고 여성건강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 여성이 일생동안 당면하는 모든 생활사건들이 여성의 건강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이나 위치를 살펴볼 때 여성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실적으로 여성건강에 유리한 조건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여성건강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고찰이 개념적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여 과연 여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속에서 여성건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순과 억압들, 편견과 이중노동은 여성문제라고 해서 여성만의 문제만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여성의 문제 역시 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과 한국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여성보건모델이 태동해야 함이 절실하다.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그동안 여성관련 정책들이 선거용 공약이나 구색맞추기 수준에서 매우 피상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에 비해 이번 15대 총선에서 4당이 제시했던 분야별 여성정책공약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폭력관련 공약을 보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 대중매체 등 성폭력 유발요인 제거, 퇴폐향락문화 근절과 사회환경을 정화하는 제반 법률강화와 대책수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수립 마련을 공약하고 있으며, 국민회의와 민주당에서는 성폭력 전담경찰부서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는 등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어느 당이 다수를 차지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당이 이러한 공약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하는 15대 국회에 큰 기대를 걸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실천되려면 무엇보다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내구타 문제와 성폭력을 개인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간주하며,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보호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여성에게 베푸는 시혜차원에 머물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정립할 수 없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지난 제4차 유엔세계여

성회의에서도 이 주제로 수백개의 워크숍이 열릴 정도로 가장 주요한 여성문제 이슈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형태의 폭력, 즉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과 아동의 국제 인신매매, 여자 태아 살해, 강제매춘 및 성희롱 등 성에 근거한 폭력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상반되는 행위로서 반드시 퇴치되어야 하며 철폐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유엔회원국에 속한 각 나라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긴급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대 국회에서도 여성폭력에 관한 이와같은 관점에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사안에 따른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문제 외에도 매매춘문제, 인신매매,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폭력, 퇴폐적인 성산업, 외국여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여자태아 낙태문제 등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폭력 유형들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직장내 성희롱 금지 대책수립 및 성폭력관련 공약 사항들을 15대 국회에서 확실하게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프로필

- 1991년 2월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91년~현재까지 YMCA 시민경제실 운영위원
- 1995년~현재까지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위원
- 1995년~현재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 고문
- 1995년~현재까지 경찰청 자문위원
- 1995년~현재까지 소비자문제및 공정거래연구모임 간사
- 1996년 현재 신한국당 부대변인, 변호사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 의원

생년월일: 1958년 10월 23일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3동 현대2차아파트 208동 1101호
전화번호: 454-6631

학 력

- 1977년 2월 경북여고 졸업
- 1981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3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 력

- 1982년 7월 제 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3월 사법연수원 제 14기 입소
- 1985년 2월 사법연수원 제 14기 수료
-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 임관
- 1989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3년 3월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역임,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역임
- 1995년 3월 광주고등법원 판사
- 1995년 8월 법관직 사임
-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1996년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변호사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프로필



새정치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 의원

생년월일: 1932년 5월 24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번지 현대아파트 80동 802호
전화번호: 542-0593

학 력

- 1955년 3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 졸업
- 1957년 6월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75년 5월 미국 오하이오 노던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경 력

- 1958년~1962년 이화여대 사범대학 및 숙명여대 강사
- 1961년~196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 1966년~1970년 성균관대 문리대 부교수 겸 여학생처장
- 1969년~1988년 한국지역사회학회 후원회 이사 및 부회장
- 1970년~197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교수
- 1971년~1982년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 1971년~1973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 1973년~1975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1984년~1985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연구교수
- 1985년~1988년 현대고등학교 교장
- 1985년~1995년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여성부의장
- 1990년~1992년 계원예술고등학교 교장
- 1993년~현재까지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 1993년~현재까지 한국뉴스타트운동본부 회장
- 1994년~현재까지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및 임원
- 1996년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회 부의장, 총재 교육특보, 교육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상 훈

- 1987년 6월 3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프로필



새정치국민회의
신낙균(申樂均) 의원

생년월일: 1941년 2월 1일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효성빌라 1동 102호
전화번호: 408-9908

학 력
1963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기독교학과 졸업
1969년 5월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1984년 8월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교육대학 졸업
1991년 12월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교육대학(EDS, 교육전문학위 수여)

경 력
1969년~1973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및 기숙사 사무과장
1973년~1982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1974년~1982년 금선어린이집 설립 및 원장
1986년~1987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1985년~1991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1988년~1991년 국제대학교 교육학 강사
1991년 1월~12월 한국방송위원회 심의위원
1991년~1995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1993년~1995년 한국방송공사 이사
1994년~현재 아태재단 자문위원
1994년~1995년 한국여성NGO위원회 공동대표
1995년~현재 GTV자문위원회 위원장
1995년 9월~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및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생년월일: 1941년 8월 10일
주 소: 전라북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157번지
전화번호: 989-2315

학 력
1956년 화순중학교 제6회 졸업



새정치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 의원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프로필

1958년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1회 졸업
1977년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제7회)

경 력

1979년 유신치하 정치규제 3차해금
1981년 민주협 발기인 및 운영위원
1984년 신민당 민권국장
1986년 서울대 초청연설사건으로 투옥(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 독방 6개월)
1986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1987년 박종철사건 진상 조사위원
1988년 평화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위원장
1991년 통합민주당 당무위원
1991년 통합민주당 서울시지부 부지부장
1992년 한국내외문제연구소 이사
1994년 200인서명 한국사회여성회 회원
1995년~현재까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

생년월일: 1950년 9월 20일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공동산아파트 1907동 1002호
전화번호: (032) 324-3991

학 력

1973년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영문학과 졸업
1982년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 력

1973년~1975년 한국사회선교협의회 간사
1976년~1980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1982년~1984년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연구원
1983년~1984년 이화여대 정치학과 강사
1983년~1985년 한국여성평우회 공동대표
1987년~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부회장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프로필

- 1991년 12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집행위원장
 1992년 9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한국대표
 1993년~1996년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996년 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정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시 여성위원회 자문위원

+++++

생년월일: 1941년 10월 10일
 주 소: 경주시 황성동 삼익세라피아파트 102동 211호
 전화번호: (0561) 745-8011

학 력

- 1963년 2월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5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1993년 8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35기)
 1993년 12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13기)

경 력

- 1961년 5월까지 대한민국 전국여학생회 대표위원
 1961년 10월까지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
 1965년 5월까지 국제신문 정치부 및 문화부 기자
 1967년 11월까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프로듀서
 1975년 7월까지 코리아라이프사 발행인 겸 편집인
 1987년 6월까지 국제청소년문제 연구소장
 1989년 5월까지 한국여성개발원 청소년문제 강사
 1989년 9월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문화론 강사
 1989년 10월까지 서울무궁화로타리클럽 초대, 2대 회장
 1991년 11월까지 한국여성로타리클럽 연합회 회장
 1993년 1월까지 경희대학교 여성총동창회 회장
 1994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여성총동문회 부회장
 1996년 3월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
 1996년 11월까지 경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무소속

임진출(林鎭出) 의원

여성관련통계

역대 여성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정치분야의 여성참여 지표로서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2~3%를 밑돌고 있어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11일에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성국회의원 총수는 제헌국회에서 15대까지 총 77명으로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의회진출이 저조해 대표성 확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13대, 14대에 단 한명의 지역구 여성의원을 내지 못한 데에 반해 15대 총선에서는 2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으나 이는 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수치이다.

한 나라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만 여겨온 보수적 사회문화의 쇄신과 함께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문화의 형성 및 여성 스스로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성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1948~1996)

(단위: 명(%))

대	시 행 연 도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계	여 성	계	여 성
1 대	1948	948	21 (2.2)	200	1 (0.5)
2 대	1950	2209	11 (0.49)	210	2 (0.95)
3 대	1954	1207	10 (0.82)	203	1 (0.49)
4 대	1958	841	6 (0.71)	333	3 (0.9)
5 대	1960	1518	8 (0.53)	233	1 (0.43)
6 대	1963	976	7 (0.72)	175	2 (1.14)
7 대	1967 지역구	702	4 (0.57)	131	1 (0.76)
	전국구	119	4 (3.36)	44	2 (4.5)
8 대	1971 지역구	577	2 (0.35)	153	0 (0)
	전국구	121	7 (5.79)	51	5 (9.8)
9 대	1973 지역구	339	2 (0.59)	146	2 (1.37)
	전국구	73	10 (13.7)	73	9 (12.3)
10 대	1978 지역구	473	5 (1.06)	154	1 (0.65)
	전국구	-	7	77	8 (10.4)
11 대	1981 지역구	635	10 (1.57)	183	1 (0.55)
	전국구	228	15 (6.6)	85	7 (8.24)
12 대	1985 지역구	440	7 (1.59)	184	2 (1.09)
	전국구	171	9 (5.26)	92	6 (6.52)
13 대	1988 지역구	1046	14 (1.34)	224	0 (0)
	전국구	-	13	-	6
14 대	1992 지역구	1052	19 (1.8)	237	0 (0)
	전국구	154	16 (10.4)	62	3 (4.84)
15 대	1996 지역구	1389	20 (1.4)	253	2 (0.79)
	전국구	163	19 (11.6)	46	7 (15.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상황총람」)

회원단체를 찾아서



왕준련 회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국민식생활 및 영양개선계몽과 조리법 개발, 보급을 위한 교육 전문조리기능사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계몽과 조리법 개발, 보급을 위한 교육 전문조리기능사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식생활 개선하면 분식장려운동의 개념이 먼저 떠올랐던 1967년 당시 왕준련 회장이 체계적인 식생활개선계몽운동 전개를 위해 뜻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해오다가 1969년 2월 15일, 농림부로 부터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왕준련 회장과 안승준, 박정신 부원장이 중심이 되고 감사 1명, 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83년 8월부터 부설로 조리기능사 전문양성기관인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전 한국조리기능인정직업훈련원)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식생활 및 영양개선 계몽교육, 국내 부존식량자원을 활용한 조리교육, 전문조리기능사 양성배

출을 통한 국가조리기능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식생활행사인 요리전시, 시식, 발표회, 솜씨대회 개최 등 꾸준히 국민 식생활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식생활 및 영양개선계몽 감습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강의와 낭비없는 식생활을 위한

식단작성법 지도, 우리농수축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식단 조리법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 전문조리기능사 양성교육
부설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 상시 조리기능사 양성을 위한 교양·기술교과 및 기본실기, 전공실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식조리기능사와 양식조리기능사 전문반으로 구분되어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리업무 종사원에 대한 업소방문 강의를 실시하여 조리교육 기회 확대와 조리기능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 단체급식 조리원 교육
단체급식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조리시범, 실습과 지역별특성을 살린 메뉴개발 등 조리업무부분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있다.

▲ 주부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가용유휴인력인 주부에게 단체급식에 관한 조리실무요령과 취업에 필요한 현장적응 기능을 단시일내 습득케하여 직업사회에서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 급식학교 순회 향토식단 개발보급 교육
지역특산물인 부존식량자원을 이용한 향토식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학교자모들을 대상으로 조리시범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에 용



정신 함양과 식생활개선 지역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 군 급양대 축·수산물 요리교육
군에 공급중인 축·수산물의 합리적인 조리시범 교육을 통해 군급양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식품회사 제품개발에 따른 자문 및 조리교육·관능검사 실시
식품회사의 제품개발에 따른 자문 및 합리적인 조리법 지도와 제

품개발 및 보완을 위한 소비자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회원지도 사업
회원 월례강습회를 통한 식생활교육과 식단작성법 자문, 식생활행사시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등 유대강화를 통해 결속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유네스코, 여성과학자 역할 확대 촉구

이영님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유네스코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남성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이 남성만의 세계는 성차별로 인해 빈곤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연구에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국정부, 할례위협 받는 여성에 정치망명 허용 검토

미국 법무부는 최근 성기절제(할례)의 공포에 쫓겨 미국으로 탈출, 망명을 신청했으나 불법난민으로 1년반동안 수감된 19세의 아프리카 여성을 석방,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해있는 많은 여성들의 운명을 결정할 시범 케이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이민귀화국은 지난 94년 토고로부터 탈출해 미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토고 출신 파우지야 카싱가가 앞으로 모든 이민신청 절차에 응한다는 조건아래 그를 석방키로 동의했다.

카싱가의 변호인인 카렌 무살로는 "그녀가 석방된 것은 기쁘지만 석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녀의 구금상태에 대해 그토록 많은 여론의 요구와 집중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귀화국은 성명을 통해 카싱가의 상황은 "새롭고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야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외국인 이민신청자들과는 다르다고 밝히고 카싱가의 주장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청문회를 앞두고 이민귀화국은 이민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기절제의 공포는 정치망명의 정당한 사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귀화국은 그러나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단적인 형태의 절제를 당하게 될 여성들에게만 이같은 망명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당국의 의견서에 대해 이민의 권리 지지자들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법원에 대해 개개인의 박해사유를 심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특정 망명신청사례를 배제하도록 요청한 것을 비난했다.

세계여성지도자포럼 개막

전·현직 여성 국가원수를 비롯, 전세계 34개국의 정치·경제·과학 분야에서 지

도적 역할을 수행중인 여성 9백여명이 참석한 세계여성지도자 포럼이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막됐다.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증진 방안을 모색하게 될 이번 회의는 이날 리셉션을 시작으로 6일에는 '여성지도자들이 직면한 도전', 7일에는 '국내외 경제정책들'이라는 주제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아이슬란드의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대통령과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을 비롯해 터키의 탄수 칠레르 총리, 에디트 크레송 전 프랑스 총리, 안나 수호츠카 전 폴란드 총리, 카지미에란 프문스키에네 전 리투아니아 총리, 유지니아 찰스 전 도미니카공화국 총리 등이 참석했다.

비르기타 달 스웨덴 의회의장은 전세계 국가의 90%가 10% 안팎의 여성의원을 갖고 있다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비그디스 대통령은 "여성과 남성은 다음 1천년의 도전을 함께 맞아야만 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공무원중 절반, 의회의원중 40%가 여성이며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가장 높아 이번 회의의 첫번째 개최지로 선정됐으며 스웨덴 정부는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와 함께 이번 회의를 후원하고 있다.

유네스코, 여성과학자 역할 확대 촉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남성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이 남성만의 세계는 성차별로 인해 빈곤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연구에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했다.

페데리코 마요르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과학연구의 90%가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연구 분야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유네스코가 발표한 '1996년 세계 과학보고서'에 따르면 과학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참담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전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교육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과학과 기술은 '남자들의 과목'으로 치부돼 여성을 따돌리고 있으며 이같은 장벽을 극복하는 일부 선진국 여성들조차 남성들에 못 미치는 소득과 고립감 등 미묘한 차별 때문에 남성들보다 쉽사리 이 분야에서 손을 떼게 된다고 보고서 작성자인 샌드라 하딩(미국 델라웨어 대학)과 엘리자스 맥그리거(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은 줄어들며 이들은 권한이 적은 위원회에 배치되거나 보다 적은 예산, 보다 적은 수의 직원을 배정받게 된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남성이 지배하는 과학분야에 다양성이 생기게 되고 이는 결국 과학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쓰비시 미국 자회사, 사상최대 성희롱 사건 피소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회사의 미국내 공장에서 일하는 약 7백명에 달하는 여직원들이 여러 해 동안 남자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사실을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과한 데 대해 수백

만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고용균등위원회(EEOC)는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의 여직원들이 모욕적인 신체적 접촉과 성적 언사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성희롱은 다른 조립 라인 근로자들과 하급 관리자에게 의해 이루어졌으나 고위 관리자들도 이처럼 만연된 성희롱의 분위기를 묵인해 왔으며 이같은 사례를 중단시키려는 위원회의 협상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폴 이가사키 EEOC 부위원장은 "대기업이 여러해 동안 여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충격적인 성희롱 행위를 허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우리 공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소송은 아마도 회사가 계속 부인해 온 지난 94년 사건에 근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가사키 부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

둔 클린턴 행정부의 정치적 소송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문제의 소송은 클린턴이 지명한 위원들이 취임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회균등위원회가 승소할 경우 여직원들은 1인당 최고 30만달러의 배상금과 추징금을 받게 되는데 미쓰비시측은 이미 30명의 여직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이들 여직원은 공장의 일 본인 경영진이 해외연수중 남자직원들을 라이브 섹스 쇼에 데리고 다녔으며 여자들은 공장에 부적합하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여직원들은 또 남자직원과 상급자들이 자기들에게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지고 성적인 낙서와 그림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92년부터 94년 사이에 EEOC에 여러 차례 이를 신고했으며 지난 94년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다.

이들 여성의 변호인인 패트리시아 베나시는 "이번 사건은 전대미문의 광범위하고도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나서서 여직원들을 도우려 했던 남자들조차도 보복을 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석에 서게 된 미쓰비시 남자직원들은 정부가 개입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조에 따르면 성을 근거로 한 고용상의 차별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日 위안부기금 미키 발기인대표 사임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약간의 보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족된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의 미키 무쓰코 발기인 대표가 하라 분배에 기금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미키 다케오 전총리의 부인인 무쓰코 대표하는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이 기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국가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금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 사임한 것을 알려졌다.

미키 대표는 줄곧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국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내각이 피해자들이 고통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발기인 대표로서 국가보상운동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며 취임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발기인 대표직을 수락했었다.

그러나 하시모토 내각으로 바뀌면서 개인배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도 개인보상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함에 따라 사임을 결정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한편 미키 여사는 앞서 2일 하시모토 총리에게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위안부 보고서를 높이 평가한 뒤 하시모토 총리가 직접보상을 거부한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이 기금은 3백여명에 달하는 아시아지역의 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각 3백만엔(약2천4백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 보상금이 7~8월께 한국, 필리핀, 대만의 피해자들에게 한번에 지급될 것이며 이와함께 피해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하시모토 총리 명의의 편지도 보낼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직접보상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수용할 지는 의문이며 이를 수용한다 해도 기부금 모금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총 10억엔 상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여성 3분의 2이상 현실 불만

미국인의 62%가 미국이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94년 선거때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성난 백인 남성들'의 지지 덕분이었던데 반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들 '걱정스러운 여성층'이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잘못된 길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대답이 남성 53%, 여성 70%,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대답은 남성 36%, 여성 22%로서 미국인 대부분이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더욱 불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의 불만 이유로는 경제문제, 가정도덕의 붕괴, 섹스와 폭력에의 노출, 사회복지 감축, 불법이민, 범죄, 마약 등이 주로 꼽히고 있다.





세계여협 집행위원회 회의를 다녀와서

강경화 (본회 국제관계위원)

1997년 6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제28차 세계여협(ICW) 총회를 준비하는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8일에서 21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다. ICW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상임위원장, 유엔기구 파견관, 그리고 각국 여협 회장과 대표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정적, 존재론적 위기를 맞고 있는 ICW의 미래에 대해 나흘간 열띤 논쟁이 진행됐다. 본회에서는 이연숙 회장, 정영숙 이사, 고기효 이사, 윤수자 이사, 문수자 이사 등 15명이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주최국인 뉴질랜드 여협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나 호화로움은 없지만 아늑한 가운데서도 진지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개회식결 환영 리셉션도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은 채, 마우리족의 전통춤을 시작으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겸손하고 따뜻한 뉴질랜드 사람들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냈다. 이튿날 저녁 열린 오클랜드 시장 주최 만찬에서는 전원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대표단이 축제 분위기를 돋구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모두 사진 모델 서주느라 분주했고, 각 테이블에서도 자연스레 한복을 화제삼아 국제 우호를 나누었다. 참석자들을 위해 나이답지 않게 성숙한 바이올린을 연주한 12세 소녀가 불과 2년전에 가족을 따라 뉴질랜드에 이민 온 한국 소녀임이 장내에 소개되어 자랑스런 마음을 갖기도 했다.

한편, 회의 진행을 맡은 ICW 사무국과 이사진은 관계자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한계점을 들어냈다. 재정적, 인적 자원에서 쪼들리고 있는 채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들어났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ICW의 재정 상황, 조직 변화의 가능성과 미래의 방향, 그리고

북경 행동강령의 실천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재정 문제였다. 주지하다시피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ICW는 과거의 화려했던 면모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는 위축돼 있는 상태다. 그 이유로서 여성단체들의 국내 활동과 국제적 연대가 분야별, 직능별로 세분화하고 활발해지면서 ICW처럼 일반적, 포괄적 성격의 국제단체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탓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ICW를 계속 과거의 틀에 묶어놓고 있는 지도부의 과오가 크다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각국 여협(NC: National Council)을 회원단체로 하고 이들이 낸 회비로 운영되면서도, 주요 사안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사진과 집행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회원단체들의 대표성이 희석되는 조직적 특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내 NC와 무관하거나 이를 "졸업"한 노년층의 평생 회원들이 집행을 장악한 상태에서, ICW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NC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이러한 근본적 위기를 반영해주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집행위에 대한 회계의 보고는 문제의 심각성이 잘 나타났다. "ICW가 여성을 대표하는 국제적 기구로 존속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돈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들렸다. 그러나 ICW의 위기는 그 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것으로 비춰졌다. 즉, 그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기존의 구조와 체제로는 그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답답한 것은 현재의 지도부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도외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진이 제시한 방법도 매우 소극적이고 자멸적인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즉, 파리 중심가에 있는 본부 건물을 팔고 유지비가 덜 드는 곳으로 본부를 옮기자는 것이 주된 제안이었다. 건물판매를 기정 사실화하고, 예상 판매가가 어느 정도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판매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등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는데 대해, 본회 이연숙 회장은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나마 있는 집도 관리하지 못해 팔아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집을 산들 관리할 수 있겠는가? 집을 파는 것은 재정적 파탄의 첫 걸음이다. 집을 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집을 늘리고 더 번창할 생각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지도부가 나서서 다국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기금모집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돈이 없어 회비를 못내는 NC들과는 좀 여유있는 NC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방법 등 창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로써 촉발된 열띤 찬반 토론 후, 건물관에 문제는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판매하자는 쪽이 두 표 많았으나, 두 표 차로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규정을 바꿔 한 나라에서 복수 회원이 ICW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단은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만의 가입 문제와 연관이 두절됐거나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동면"(dormant) NC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이 현장 개정안에 대해서, 이연숙 회장은 예외적 경우를 수용하기 위해 원칙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존의 회원 NC가 추천하는 조건하에서 또 다른 협의체가 ICW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현장에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회비미납 NC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문제시되는 NC는 절차를 밟아 과감하게 사퇴시키고 그 대신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ICW 회원으로 포섭하도록 제안했다. 또 그 과정에서 ICW 이사 개개인이 동면 NC들을 몇 개씩 할당받아 적극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사들이 안일한 태도를 벗어날 것을 종용했다.

이처럼 ICW의 생리와 생존이 논의의 쏠점이 된 가운데, ICW 상임위원회의 재편과 투표 절차 문제, UN에서의 ICW의 위상, 지역별 활동, ICW의 개발지원 사업, 북경 행동강령의 실천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지역별 활동과 관련해서, 이연숙 회장은 전체회의, NC회장 회의, 그리고 아·태 지역회의 발

언을 통해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지리적·문화적으로 너무 방대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ASEAN에 속한 동남아 NC들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중국과 일본이 ICW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북아를 홀로 지키고 있는 한국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면서, 아·태 지역에 관한 한 보다 소규모의 sub-regional 모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경 행동전략 실천과 관련해서는 북경이후 즉시 나온 우리의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의 성과, 한국여성 NGO위원회의 활약상, 그리고 연초에 학부모와 연대하여 성취한 고교입학 연합고사에서의 성차별 폐지 등 그간 한국 여성의 단합된 힘과 창의력이 가져온 진전을 소개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휴식 시간에 우리 대표단을 찾아와 이연숙 회장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동의의 뜻을 표하고, 심지어는 참고하게 발언을 다시 정리해 달라는 참석자들이 많았다.

요컨대 금번 ICW 집행위 회의에서는 위기를 인지하면서도 남은 사고와 행동양식에 엄매인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ICW의 과감한 변화를 원하는 개혁 세력의 대립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그리고 이는 내년도 오타와 총회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집행위 회의에서 개혁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끌었다. 본회의 탄생과 성장에 ICW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제2세기에 들어선 ICW의 변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여성학 지상강좌

여성과 환경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리우회담이 지난지 만 4년이 가까와 오건만 정부는 아직도 <의제21>에 대한 국가실천계획을 확정·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내 여성환경운동가들은 북경회의 행동강령의 환경부분에 대한 이행과 <의제 21>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평가 작업에 착수하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21세기 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인 중 하나로 환경문제를 예측하는 가운데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렸던 지구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더니 벌써 뚝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얼마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때에는 그린라운드가 우리경제에 미칠 타격에 관한 걱정과 피해의식 속에서나마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요즈음은 그나마도 소원하다. 지난해의 4대선거, 얼마전에 치른 15대 국회의원선거 때문인지 언론의 알파한 관심도 이미 환경문제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에서도 환경문제는 리우회의 이후 한동안 커다란 관심사였다. 지난해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앞두고 국내 여성단체들은 한국NGO위원회 안에 환경분과를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였다.

리우회담이 지난지 만 4년이 가까와 오건만 정부는 아직도 <의제21>에 대한 국가실천계획을 확정·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내 여성환경운동가들은 북경회의 행동강령의 환경부분에 대한 이행과 <의제 21>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평가 작업에 착수하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여성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1. 여성이 느끼는 환경문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빈약한 부존자원과 자본으로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아래 환경오염의 주 요인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율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이며, 화석연료의 의존도도 80%나 되는 등의 사실만 보아도 우리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은 자명하다. 그동안 과학기술과 경제면에서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국민 총생산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지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토양과 물, 공기가 오염되어 식량과 식수,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자인 여성의 삶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 오염도 자연환경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정부의 묵인아래 마구 늘어나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까지 침투한 각종 향락시설, 인간성을 존중할 줄 모르며 무책임한 상업주의에 치우친 대중오락 프로그램은 물론, 급속한 경제발전의

물질을 타고 지위상승을 꾀하려는 사람들의 지나친 경쟁과 물질주의, 그에 따른 도덕성의 부재와 가치관의 혼란 등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의 오염상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들중 97%가 평소에 자녀를 키우면서 환경오염때문에 위험을 느끼거나 자신들이 자랄 때보다 오염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고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 사회환경이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양식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더이상 자연과의 일치를 통한 완화를 느낄 기회도, 자연으로부터 화합과 인내를 배울 기회도 잃어버렸다. 비가 온 후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할 수 없고 밤하늘에서 쏟아질듯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오락산업이 쏟아내는 상품과 홍보물들로 마구 오염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안타깝다못해 죄의식을 느낄 때도 종종있다.

사실 여성들에게 오늘의 환경위기는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가치관의 문제를 포함하는 '인간위기'로 느껴진다. 지난 30여년 동안 '끊임없이 필요를 인위적으로 창조하는'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끌려다니는 사이에 삶의 본유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이 상실되었고, 지금 우리는 60년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안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 소비생활과 여성환경운동

환경문제는 사람들의 경제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산업화 이후의 경제적 비약은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그 맹목적 추구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고, 분배의 불평등과 왜곡된 부의 축적,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지위과시적 소비 등의 문제를 낳았다. 1950년대 이후의 세계 사람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량을 달리기까지로 한 산해 볼 때 1950년 이전의 모든 인류가 소비했던 양과 맞먹는다는 더닝(Durning)의 보고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앞으로 사람들의 소비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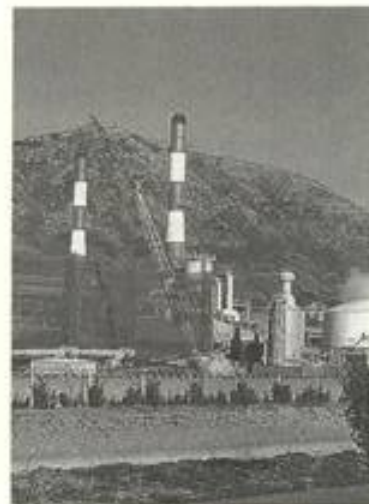
그러나 모순적인 것은 이러한 엄청난 소비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에 거의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물질적 소유와 편의의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의 증가를 초래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예로 영국의 심리학자인 아가일(Argyle)은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심리학자인 프리

드만(Freedman)도 빈곤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는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절제와 절서있는 근대적 시민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채 짧은 기간에 얻은 부를 향유하고 과시하는데 급급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건전한 경제규범을 정립하는데 민간 소비자운동단체의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물론 경제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는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맹목적인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에는 잠재적인 시장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과잉생산을, 그것도 생산비의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환경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해 왔다. 시장판매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물질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불만을 갖게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장지향적 경제체제의 마케팅전략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그들이 가진 막강한 구매력을 통해서 생산을 변화시켜야 한다. 소비자로서 환경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품의 구매와 사용, 쓰레기 감량과 처리, 녹색소비자 정치운동 등 세가지의 세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그동안 과학기술과 경제면에서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국민 총생산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지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토양과 물, 공기가 오염되어 식량과 식수,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자인 여성의 삶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볼 수 있겠다.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염두에 둘 것은 특정 물건을 사고자할 때 당장에 드는 비용은 물건 값 뿐이겠지만 그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용하고 폐기할 때 초래되는 환경적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상품을 선택할 때 의식있는 소비자라면 그 물건의 원재료, 제조과정, 처리의 경제 싸이클(상품의 life cycle)에서 환경을 가급적 덜 해치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① 사용시 오염을 덜 일으키는 재료를 사용하였나, ② 물건의 디자인과 포장에서 자원을 절약하였나, ③ 사용 후 재활용될 수 있나, 혹은 분해가 되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소비행동의 선택기준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환경마크제가 한국에서도 1992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이 미비하여 적용 대상도 제한되고 대상품목이 청정기술개발을 유도해 내기에 미흡한 품목들이며, 선정기준(예: '저공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등 크게 유용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할수록 환경마크제가 보다 빨리 보완되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감량과 처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져왔으며 종량제의 실시로 일반인들의 의식은 어느정도 형성되었다. 전반적인

상품소비 수준과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전국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의 93%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재활용되는 비율은 5% 미만으로서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이 그나마 성공하는 지역에서는 의식과 의지를 가진 소수의 주부들이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과중하고 그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업 주부의 여가시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쓰레기 분리작업은 문제가 있다. 아버지와 젊은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의무로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소비행동의 선택기준으로 환경을 고려하자는 '녹색 소비자운동'이 정착하였다. 녹색 소비자운동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①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대처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과 ② 소비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개개인의 환경보전 실천사항 ③ 지역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조사나 연구, 환경모니터링 ④ 기업이 환경오염행위 감시 ⑤ 환경오염(기업)제품 불매운동 ⑥ 환경정책·행정·입법화에 압력행사를 통한 제도개선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 단체에 환경고발창구를 개설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녹색소비자 운동사례로 영국의 WEN(Women's Environmental Network)에서는 환경이 한 톨을 만들 때마다 사용되는 염소표백제가 청산칼리보다도 5만배나 더 위험한 다이옥신(dioxins)을 포함한 organochlorine을 35~65kg을 방출해 낸다는 사실에 주지하고 1989년에 '표백되지 않은 종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들에게 종이로 된 위생용품에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유럽전역에 도미노효과를 가져와서 종이의 생산과정에서 염소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작용하였다(스웨덴에서 생산되는 종이제품의 90%가 비표백제 종이라고 함).

WEN의 포장거부운동도 유명하다. 이 캠페인에서는 여성들이 동네가게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할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장을 그자리에서 뜯어서 정중한 불평과 함께 가게에 돌려줌으로써 기업이나 가게에 최소한의 포장만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의 양에 민감해진 우리나라에서도 해보적한 운동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모임'이라는 단체는 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추진 중인 것을 알고 전기소비량에 대한 연중 연구를 하고 절전

운동까지 벌이면서, 전력이 부족해서 발전소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행정부를 설득시켜 계획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여성들은 무조건 발전소를 짓지 말라는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통해 자료를 제시하고 절전을 실천하며, 지역의원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부인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자기 딸과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혹시 물의 오염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이사간 사람까지 뒤져) 조사하여 결과를 지도로 만들었다. 이 활동은 지역의 공장에서 방출되는 첨단공학 화학물질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고발하고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물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성환경운동에서는 보다 조직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수문제만 하더라도 생수를 사먹고 마는 개인적인 대안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수질 및 그 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보내도록 정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압력을 넣어야 한다.

3. 결론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시민환경운동에서 여성은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환경운동의 성공에 주요하였다. 여성은 지역생활의 중심으로서, 자신의 생활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의정감시단을 조직하여 지방의회가 환경행정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는지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때 지역의 환경문제를 동한히 하는 후보는 뽑아주지 않는 등 정치적인 압력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많은 여성들은 경제의 논리나 힘의 논리보다 생명의 논리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본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연과 생명과의 특수한 교감능력, 감수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생활양식 즉,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남용하고 지배해도 좋다는 인간중심주의, 군사주의, 무한정한 성장논리의 경제정책, 그리고 힘의 구조와 결합한 과학기술의 오용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볼때 앞으로



→→→
많은 여성들은
경제의 논리나 힘의 논리보다
생명의 논리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본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연과
생명과의 특수한 교감능력, 감수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생활양식
즉,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환경보전을 위해 삶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성장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은 반창고적 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경제의 논리나 힘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사고와 생활양식을 바꾸어야만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부업에서 세계가 보인다"고 한다. 즉, 두부 한모에서 농산물 수입문제, 식품오염과 토양오염의 문제, 생태계의 균형문제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생태계 파괴와 자원고갈로 인해 곧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 환경적 부담이 단지 현존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는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낳아 기르는 재생산자로서 부모는 환경교육자로서, 미래세대의 환경육구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호영 (정보관리기술사, (주)지아이에스 대표이사)

정보화는 21세기에 선행적인 국가 기반구조의 확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 범위가 광대해지는 정보화분야의 신규 고용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보화는 산업·공공행정·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변동의 추세로서, 국가 발전에 핵심적 기여를 하게 될 분야이다.

I. 국가사회정보화의 배경과 필요성

1. 정보화의 일반적 배경

정보화가 촉진되는 배경으로는 정보의 가치증대와 정보에 대한 인식화, 개인욕구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가 주요측면의 동인이 되며, 정보 기기의 발달과 정보·통신하부구조의 효율화는 공급측면의 동인이 되고 있다.

정보화는 21세기에 선행적인 국가 기반구조의 확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 범위가 광대해지는 정보화분야의 신규 고용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보화는 산업·공공행정·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변동의 추세로서, 국가 발전에 핵심적 기여를 하게 될 분야이다.

2. 국가사회 정보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의 상황은 선진국의 고품질 상품과 개도국의 노동집약적 대량생산체제 사이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최근의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의 심화로 기술이전이나 협업 또한 어려운 상태이다. 지금은 우리의 상품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경주하여야

할 때로, 정보화는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3. 산업의 정보화와 국가경제

정보화로 사회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업무능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화의 물결에 같이 선 사람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하여 개인소득의 증가는 생활방식,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정보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높은 품질의 정보는 더 나은 생활로 나가는 촉매제가 되어 국가경제발전의 순환 고리가 된다.

II. 정보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기본방향

국가 경쟁력강화의 필수요건인 정보화촉진의 여건 마련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최고 경영층을 비롯한 각 조직 구성원의 의식구조 전환, 행정절차·제도·관행의 간소화, 업무처리이 표준화, 데이터의 규격화, 정보기술, 정보활용,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강화, 정보의 자원화, 자산화, 전

문가와 기술개발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정보화 역기능의 사전예방, 정보재산의 독점방지, 인력구조 재편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의 미연 방지 등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국가기간전산망에는 행정전산망사업, 금융전산망사업, 교육·연구전산망사업 등이 있다. 공공기관업무의 정보화로는 공공기관의 사무자동화를 통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정부기관간 네트워크에 의한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산업의 정보화

제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도 생산과정의 정보화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WTO체제의 본격 출범으로 농수산업의 개방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농수산 분야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농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정보나, 유통정보 혹은 기상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생산자에게 농업기술정보, 시장정보, 기상정보 제공, 경작농산물의 종류, 파종시기, 출하시기 등을 제공하여 농수산업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차산업 부문에서의 정보화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제3차산업인 서비스 부문의 경우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특히, 금융 및 유통산업의 정보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부가통신서비스(VAN)를 통한 사업의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3. 지역과 사회의 정보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및 주요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보화는 첫째, 정보화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둘째 시·군·구 종합민원시스템구축, 우체국의 행정민원 대행체제 구축,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추진 등을 통한 지방의 정보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세번째는 농수산물 유통정보화 촉진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유통정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의 중간 유통단계의 축소를 가져와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이득을 가져오고 있다.

III. 정보화 결과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나

1. 산업사회의 변화와 우리나라 위상

향후 산업사회는 물질·자원 등의 하드웨어 중시에서 지식·서비스 중시의 가치관 속에 소프트웨어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정보화는 앞으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21세기를 선도할 기술은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대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의 보편적 활용 및 고도화를 통한 정보화사회 구현으로 G7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보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전망

정보화에 따라 1차산업은 장치(공장) 산업화되고, 2차 산업은 3차산업(서비스산업)화 되는 산업 고차화에 따른 3차산업(서비스산업) 비중이 증대화 되는 등 산업의 고차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산업은 고도 정보처리·정보통신기술 전개 등으로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 조정기에 고급직종의 인력 비중이 제고될 것이다. 사회의 부가 축적될수록 하위직(육체근로자)보다는 고급직(매니저, 전문가, 행정가)의 인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화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 조짐으로는 직업그룹 사이의 노동량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높은 생산성, 품질향상으로 가격이 저렴화되어 시장수요를 유발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신기술 응용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개발되어 새로운 직종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직종의 다양화, 고용흡수 확대로 전혀 새로운 서비스 직종이 등장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직종이 확대·발생되며,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선택·행동의 폭이 넓어지고 의식 등 질적 변화로 새로운 직종의 유발을 촉진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고용배제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도화된 직종의 자리는 계속 늘어나나 대신 단순직 근로자의 수요는 날로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정부, 민간단체, 개인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은 지식 전달 체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와 사상, 지식, 전세계적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인터넷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활용을 촉진할 경우 교육기반의 확대 등 사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과 새로운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적 변혁에 주체가 되기위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개념의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인자들은 각자에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여 그 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의지를 새롭게 갖춰야 한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경력이 이렇게 쌓여서"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변화를 촉진시키는 동인으로서 사회에 상당한 전략적 자산이 되어 기성세대들의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종래의 지식 전달 체계가 붕괴되어 스승의 존엄성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가 모두 바람직한 결과만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이 진전에 따라 국가 주요정보 누출, 개인 및 기업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등 일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전산감리제도의 도입이나 기술적 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정보보호에 관한 관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IV. 정보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1. 패러다임 쉬프트를 요구한다.

60년대 이후 급진적인 산업화가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왔다. 80년대부터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정보화의 추세는 고급 정보를 가진 자가 더욱 고급 정보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낮은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욱 절 낮은 정보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현상이 지속되면서 사회의 지각 변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학연, 혈연, 지연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비전, 이미지, 특정 등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서의 중심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가치관에서 탈각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된다.

2. 살아 남는 사람

다가올 정보화 사회의 준비는 지금부터 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자세 중의 하나는 유연성 있는 사고를 갖는 것이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유연한 사고는 미래사회의 가장 힘이 되는 최적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사람들은 고객 및 잠재고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가치사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단순 관리자, 후선 지원 사무원, 영업직이 아닌 화이트 칼라, 특화가 안되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로서는 유효 자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만 한 사람, 이자 소득자들이 될 것이다.

3. 또 하나의 문맹에서 탈출

"1년을 써먹더라도 10년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로운 복합미디어를 새로운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남이 사용한 도구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다면 외국어 구사를 통역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같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의 직접활용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의 선택과 구현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적 변혁에 주체가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개념의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인자들은 각자에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여 그 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의지를 새롭게 갖춰야 한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경력이 이렇게 쌓여서"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예방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가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종로천주교회 3층에서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를 주제로 삼아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청소년기의 성심리에 대해 김준기 정신과클리닉 마음과 마음 원장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우리 사회 성문화에 대해 여성학자 윤양현씨가 강연했다. 종합토론에 이어 가족과 성 상담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을 위한 수칙을 발표했다. 이 수칙은 청소년 개개인이 지킬 개인적인 수칙과 아울러 사회적, 문화적으로 개선돼야 할 방향도 포함하고 있다.

방송의 미인대회중계 도마위 올라

방송의 「미인대회」 중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종로성당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시청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공개 토론회는 미인대회의 중계방송을 주제로 삼았다.

민우회가 꾸준히 열고 있는 대중매체 속의 여성상 정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성차별 및 성의 상품화 현상을 짚어내고 개선책을 살펴 봤다.

미인대회를 토론회 부친 이유에 대해 민우회는 "미스코리아 등 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미인대회를 모니터한 결과 여성의 인격은 배제된 채 육체중심으로 「상품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이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에도 거스르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인대회가 공적인 방송매체를 통해 중계되는 것은 성의 상품화현상을 일반화시키고 여성들에게는 신데렐라육구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빚

는다"고 민우회는 주장했다. 여성들의 건강한 자아상 세우기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여성학자 오숙희씨의 사회로 이경숙 여성민우회 상임공동대표, 이영자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여성민우회 시청자주권확보를 위한 여성본부가 '95년 미스코리아, '96년 슈퍼탤런트, '96 관광홍보사절 등 미인대회 관련 중계 프로그램내용을 모니터한 결과보고서도 발표됐다.

여성민우회는 미인대회 중계와 관련, 앞으로 실천할 일로 미인대회를 중계하는 방송사 항의방문 및 시위, 선정적인 광고의 폐지운동, 방송드라마속의 여성상 정립을 위해 드라마 작가와의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여성학센터, 아시아 여성학대회 가져

「아시아 여성문제는 아시아여성들이 논함시다」 아시아권의 여성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부장제 등 아시아여성들이 안고있는 공통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펼쳤다.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96년 아시아여성학대회를 가졌다.

「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의식의 성장」을 주제로 아시아지역 여성학자 7명이 열띤 토론을 펼치는 자리다.

여성학은 본래 서구 여성학자들에 의해 태동되고 발전돼왔지만 지역에 따라 「현실감있게」 적용되려면 지역별 여성학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미국의 살롯 번치 등 저명한 서구 여성학자들이 합류했지만 주된 흐름은 아시아권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자는 것이다.

커다란 주제는 가부장제이지만 발표자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필화

소장이 한국가부장제와 여성의식의 성장을, 조혜정 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아시아 페미니즘의 극복과 미래의 전망을 발표했다.

중국 두광친교수(천진사범대 여성연구소장)는 중국의 여성주의 역사와 여성의식화를, 인도의 말라를라(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객원연구원)는 인도 여성운동의 등장을 주제로 논의했다. 태국 고빈드 켈카 교수(태국 아시아과학기술원)가 여성학 지식의 주류화와 기술개발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필리핀 메리 존 마난잔 부총장(성스칼라스티카대)는 필리핀 여성의 실태를 전했다.

일본 하라 히로코 교수(오차노미즈 국립여자대)는 다소 이채로운 주제를 택했다. 임신, 출산 등의 문제를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자는 의미의 「여성의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라는 용어를 영어에서 일어로 번역하는 어려움을 다루면서 일본 여성의 정체성을 논의했다.

미국의 저명한 여성학자 살롯 번치교수(뉴저지 주립대)가 「21세기 여성인권과 지구적 연대」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은 더 나은 미래, 인간적인 통치를 이루는 잠재력을 가진 세계적인 힘"이라고 역설했다. 살롯 번치교수는 25년간 페미니스트 저술가로 활동해왔으며 80년대 초반부터는 글로벌 페미니즘을 주장해왔다. '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도 여성인권문제를 뜨겁게 제시한 인물.

미국의 또다른 여성학자 플로렌스 하우 교수(뉴욕시립대)는 아시아와 미국의 여성학을 비교하며 그 연결가능성을 제안했다.

장필화 소장은 "우리나라는 여성교육의 제도화나 여성학 발전에서 여타 아시아국들에 앞서는 수준"이라며 이같은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학교육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한 예가 아시아여성들을 위한 여성학교육프로그램, 학술대회가 열리는 뒷편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열어 아시아여성학 교과과정을 이대 아시아

여성학센터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평등부부 어디 계십니까?"

'94년 제정된 평등부부상이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적인 부부상도 바뀌어 구태의연한 부부상을 탈피하고 있다. 남녀의 역할이 굳어져있지 않고 창의적이면서 부부 양쪽이 슬기롭게 결혼을 꾸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는 평등부부상은 정무제2장관실이 후원하는데 올해 제3회 평등부부상 후보자를 찾고 있다. 평등부부상은 해마다 5쌍을 추려 선정하며 2쌍에게는 장려상을 준다.

평등부부상은 곧 보다 많은 평등부부들을 「양산」하기 위한 성공사례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부부상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에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부부상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번 평등부부상은 5월 31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응모자격은 다음과 같다. 결혼한 지 5년 이상된 부부로 의사결정과정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재산권이 부부공동으로 평등하게 행사되며 가사노동을 협력하여 하는 부부여야 한다.

자녀교육·육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한편 취미생활이나 기타 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부부가 자격있다고 한다.

제출서류도 있다. 소정의 추천서에 추천이유를 적고 결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1통, 동거가족 모두가 찍힌 사진 1매를 내야한다.

정부 각 위원회에 여성인명록 활용된다.

정무제2장관실이 한국여성개발원과 공동으로 '95 한국여성인명록을 펴냈다.

각계 여성인사와 전문인 등 6천여명의 여성인력이

망라돼 있는 이 인명록은 정부의 각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무제2장관실이 각 부처에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늘려줄 것을 제의했을 때 어디에 어떤 여성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있었다. 정무제2장관실은 인명록을 만들면서 '93년 여성인명록에 올라있던 4천6백여명을 기초로 하되 2천5백여명의 여성인력을 새로 발굴 수록했다.

정무제2장관실은 이 인명록이 여성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인명록은 정부 내부자료로 쓰이게 된다.

‘15대 총선과 여성’ 되짚어본 세미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5월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5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한 제21회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김정숙 이사장은 “4·11 총선에서 여성의 국회 참여율이 3%로, 종래에 비해서는 늘었으나 세계 평균 여성국회참여율 11%에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세삼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의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15대 총선에서 여성후보들이 취약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과정과 문제점, 여성후보들의 선거전략을 되짚어 보는 토론회와 대안제시가 있었다. 백영옥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15대 총선의 여성후보자였던 김희선 새정치국민회의 동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전경옥 숙대 정치학과 교수, 이정자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 임진출 무소속 의원당선자 등이 나섰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알 림

『생명존중』 상징마크 · 표어 현상모집

정무 제2장관실에서는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경시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생명존중의식을 확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상징마크와 표어를 현상공모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제한없음

2. 응모규격 및 요령

부 문	규 격	요 령
상징마크	크기A ₄ (21×30cm), 색도 4색 이내	작품설명서 첨부
표 어	20자 이내	1인 다수 작품 응모가능, 관계엽서 사용

3. 시상내용

부 문	최우수작	우 수 작	가 작
상징마크	1점100만원	2점 각50만원	3점 각30만원
표 어	1점 50만원	2점 각30만원	3점 각20만원

※해당분야 당선작이 없는 경우 상상을 생략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 '96. 5. 1~5. 31 직접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5. 31 소인유효)

5. 접수 및 문의처 : (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제1정부종합청사 정무장관(제2)실 제4조정관실 ☎(02)720-2251

6. 당선작 발표 : '96. 6월 중순 당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정부종합청사 게시판에 공고

7.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연락처 명기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됨.

주관 : 정무장관(제2)실

교육정책 자문회의 가져



김경오 회장, 명예회장으로 재추대

본회는 지난 4월 2일 이사회에서 전 본회 김경오 명예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재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서울시지원 시민운동단체 사업지원에 본회 사업 선정

본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운동 활동지원 사업 공모에 '주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주부의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서울시의 사업심사를 거쳐 채택되었다.

제주여협, 임원 개선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제주여협 사무실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임원은 회장 조영자(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장), 부회장 양영미(대한미용사제주도지회장), 감사 박봉림(제주

본회는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정책, 제도, 관행 등을 모니터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남녀통합교육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교육관련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본회 2층 회의실에서는 일선교사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정책자문단을 위촉하여 첫모임을 가졌다.

이 회의에는 이정자 본회 근로여성위원회 위원장, 주은희 연대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조숙라 등 초·중·고등학교 교사, 최명균 연남고

등학교 교사, 정혜숙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김금래 본회 사무총장, 오순옥 본회 근로여성간사가 참석하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차별 사례와 여성교육정책 중 시정될 사항 및 앞으로의 전반적인 모니터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본회에서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과 여성학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5인의 모니터들이 교과서 모니터, 성차별적인 여성교육정책 사례연구,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적인 관행 모니터, 여성교육공무원 실태조사 등을 사례 연구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9월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 소식

YWCA회장), 감사 오영란(고향을 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제주회장) 씨가 선출되었다.

동정란 영인

본회 이연숙 회장과 이사진, 세계여성단체 협의회 집행위원회 참석

본회 이연숙 회장과 정영숙 한국회여역군회 회장, 고기효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문수자 국제여성성공연합 회장, 윤수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직전 회장, 본회 김금래 사무총장, 김용화 본회 조직·국제 부장, 강경화 국제관계위원, 조동민 조직관리위원, 이용옥 국제존타서울클럽위원, 이인숙 국제존타서울클럽위원, 한문선 국제존타서울클럽위원, 김제현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사, 이영실 고향을 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이사, 노정애 청목회 회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뉴질랜드 오크랜드에서 열린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집행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ICW 재정확보와 내년 6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제28차 총회에 대한 논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오고 갔다.

또한 이번 뉴질랜드에서의 회의 참석 기간에 본회 임원들은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인 오윤경대사가 주최한 오찬회에 참석했다.

이요식 회계이사, 소협 20주년기념 공로패 받아

본회 이요식 회계이사는 지난 4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소협 창립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요식 이사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소협의 실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소협의 출범과 함께 소비자 운동의 질 높은 사회운동으로의 전개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회 박영혜 부회장, 국제 학술심포지움 가져

숙명여대 창립 90주년을 기념하여 본회 박영혜 부회장(숙대 불문과 교수)이 소장으로 있는 숙대 불문화 연구소에서는 지난 4월 17일~18일 양일간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란 주제하에 하버드 대학교의 수잔 슬레이먼 교수, 바버라 존슨 교수, 파리 7대학의 프랑스와즈 가이아르 교수를 초청하여 국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박금옥 출판공보위원, 한국여기자클럽 회장에 선출

본회 출판공보위원인 박금옥 중앙일보 부국장은 지난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클럽 '96년도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박금옥 위원은 '68년 언론계에 입문, 중앙일보 생활부장 및 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제4회 최은희여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주앙산 산행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4월 17일 내설악에 위치한 주앙산과 백담사를 산행했다. 회원 53명이 참석한 이날 산행에서는 서울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해 당일코스로 이루어졌으며 봄의 향긋한 내음을 물씬 맛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주내자육원 방문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4월 19일 심신복합장애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후원시설 주내자육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회원 7명이 참여해 참쌀떡, 과자, 과일, 옷과 격려금 등을 전달하였으며 장애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

한·중 간호지도자 포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22일 오전 9시 중국

북경시내 평화호텔에서 한국과 중국 간호계간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한중간호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의 간호지도자들과 증희원(Zengxiyuan) 중국간호협회 회장과 지도급 인사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최영희, 증희원 양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한중간호지도자 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간의 간호학술 및 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모임 전 ICN회장(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세계 간호의 최근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양국의 보건 의료체계, 간호교육, 간호실무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측에서는 ▲한국간호의 개관(최영희 회장, 이대 간호과대학 교수), ▲한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김화중 이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의 간호교육(김조자,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한국의 임상간호실무(이동란 국립의료원 간호과장), ▲한국의 보건간호 실무(정연강 제1부회장,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를 각각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중국간호의 개관(증희원 회장), ▲중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고미의 부회장), ▲중국의 간호교육(류화평), ▲중국의 간호실무(왕준생 비서장), ▲중국의 전통간호 소개(왕



민 이사)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친후 준비해간 선물을 서로 교환했으며 중국간호협회가 마련한 만찬 시간을 가졌다.

식목행사 가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4일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KNA 연수원에서 최영희 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영희 회장, 박정호 중경회장, 최국미 제2부회장, 양은숙 감사, 김소인 감사 등이 기념식수를 했으며 개인명의로 기증된 2천여주의 나무가 연수원 주변에 심어져 새단장됐다.

한편 간호협회 직원들은 이날 연수원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등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퇴직여성, 재취업은 가능한가” 세미나 개최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퇴직여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여성, 재취업은 가능한가”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전 념 노동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퇴직여성의 재취업문제’와 관련,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여성재고용 촉진급부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신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둔 주부 등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도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7월부터는 정보화시대의 고급인력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퇴직자들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급인력 Pool제’를 도입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는 연간 7천여명의 고급인력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고급인력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발표에 나선 구자순 한양대 교수는 ‘퇴직여성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에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여성들이 노령층 인구의 2/3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예방적 노후대책 마련 차원에서 퇴직여성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 및 활용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퇴직여성의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여성퇴직자의 재고용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 한국퇴직여성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Women) 조직을 통한 정치활동, 가정복지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의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퇴직여성들은 3분발언대를 통해 퇴직자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여성인재은행’ 창설을 통한 재취업 기회의 확대와 능력과 일자리의 적절한 연계 시스템구축, ‘퇴직여성협의회’ 구성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사회참여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군급양 향상을 위한 축, 수산물 조리교육 실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14개소 군급양대에서 2,330여명의 급양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군부식으로 공급중인 축산물과 수산물 조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 이번 교육은 전 장 병들의 관심도와 호응도가 양호하여 계속 실시되고 있으며 군급양에 필요한 튀김, 찌개, 찜, 조림, 탕류에 대한 조리시범을 하여 군급양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리시범은 박경신 부원장이 담당했다.

’96 협력학교 향토식단 개발보급교육 실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식생활개선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식생활개선 협력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식단을 개발, 시연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정신함양과 식생활개선지역 확산을 도모하기위해 ’96 협력학교 향토식단 개발 보급교육을 다음 일정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량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양곡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지역 농산물및 특산물, 부존식량자원을 활용한 향토식단메뉴를 조리시범하며 참석자 조리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96 향토식단 교육교재를 배부하고 있으며 학교주위의 지역주민들의 참석도 가능하다.

- 다 음 -

4/17(수) 14시	충북 옥산군 옥산초등학교
5/23(목) 14시	대전 동구 흥룡초등학교
5/29(수) 14시	인천 서구 가좌초등학교
6/11(화) 14시	광주 동구 서석초등학교
6/12(수) 14시	전남 목포시 산정초등학교
6/14(금) 14시	경북 영천시 동부초등학교
6/18(화) 14시 30분	대구 달성군 현풍초등학교
6/21(금) 14시 30분	전북 전주시 기린초등학교
6/25(화) 14시	부산 사하구 신평초등학교
9/ 6(금) 14시	충남 당진군 계성초등학교
9/13(금) 14시	광주 동구 서석초등학교
10/ 9(수) 14시 30분	대구 달성군 현풍초등학교
10/16(수) 14시	경기 용인군 왕산초등학교
10/18(금) 14시	대전 동구 흥룡초등학교
10/29(화) 14시	부산 사하구 신평초등학교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 수강안내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 그동안의 식생활및 영양개선계몽운동과 과학적인 조리교육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조리기능사 자격취득 전문양성기관이다.

왕준련 회장과 안승춘, 박경신 부원장과 자격있는 훈련교사로 구성되어 조리기능사 양성을 위해 성심성의껏 책임지도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은 한식조리전문반과 양식조리전문반으로 구성되어 각 반 3



개월 과정이다.

수료후에는 노동부에서 수료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6월 3일에 개강하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오전10시반, 오후6시반이며 교육비는 수강료와 실습재료비 포함하여 월 17만원이다.

교육내용은 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양·기술교과 및 기본실기, 전공실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입학대상자격은 제한이 없다.

문의처: (02)833-1623~4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시장 입구

가톨릭여성연합회

가톨릭여성신앙대학 개강

가톨릭여성연합회에서는 봄학기 가톨릭여성신앙대학을 지난 4월 1일 개강했다.

4월부터 6월에 걸쳐 매주 월요일 실시되는 이번 신앙대학은 명동성당 교육관 203호에서 14:00~15:30까지 진행된다.

봄학기 신앙대학의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4월 1일, 2000년대의 복음화를 향하여, 원종현 신부

4월 15일, 소공동체들의 공동체, 원종현 신부
4월 22일, 복음나누기의 2가지 방법, 원종현 신부
4월 29일, 가톨릭 여성(가정), 이동익 신부
5월 6일, 가톨릭 여성(교회), 임병현 신부
5월 13일, 가톨릭 여성(교회), 한홍순 교수
5월 20일, 신앙의 위기와 극복 I, 김보록 신부
5월 27일, 신앙의 위기와 극복 I, 김보록 신부
6월 3일, 신앙의 위기와 극복 II, 조 광 교수
6월 10일, 신앙의 위기와 극복 II, 조 광 교수
6월 17일, 자아의 발견과 확장 I, 박인덕 교수
6월 24일, 자아의 발견과 확장 II, 박인덕 교수

여성문제연구회

제12대 임원 출범 2주년 평가회의 및 '주제가 있는 3분 발언'에서 열띤 토의

여성문제연구회는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여성문제연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제12대 임원 출범 2주년 평가회의 및 '주제가 있는 3분 발언' 시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3분 발언' 시간에는 결혼과 장례문화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여 3분 동안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여성문제연구회에서 펼치고 있는 '바른 문화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결혼과 장례문화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내고 아울러 사회에 널리 홍보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 맡고 있는 남성어린이집 새단장

여성문제연구회가 1981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남성어린이집이 지난 3월 9일에 새 모습으로 단장됐다. 작년 12월 동작구청의 개보수비 지원과 자가비용을 합하여 지난 1월에 보수공사에 착공한 이래 2개월만에 마무리 되었다.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회장은 2백만원을 후원하여 주방의 싱크대를 새것으로 바꾸어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주력하였다.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밝은 덕성을 길러 내는 일에 남성어린이집이 언제나 앞장 설 것이다.

대한영양사회

1996년도 병원분과 워크숍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영양부서의 QA 및 심혈관질환의 영양관리」라는 주제로 전국 병원 영양사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병원분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임상영양분야에서의 QA(Quality Assurance) 실행단계 분석해 보고 심혈관질환에서 영양 치료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대한 임상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영양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날 오전에는 '영양부서의 QA'에 대해 ▲ QA의 소개(박현주, 신촌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 환자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QA-산모식 급식 개선(나미용, 삼성의료원 영양과) ▲ 임상영양분야의 QA(손정민, 서울대병원 영양과)의 발표가 있었

다. 이어진 오후 일정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영양관리'에 대해 ▲ 영양과 심혈관질환(이명숙, 성신여대 생활과학대) ▲ 심혈관질환의 약물요법(최병일, 아주대병원 내과) ▲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환자를 위한 영양 치료(백인경,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양과)의 발표가 뒤따랐다.

표지의 말

월드컵 축제



류민자 작

류민자씨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와 1981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1970년 하인두·류민자 부부전 이래로 12회의 개인전과 80년 서울신문창간 35주년기념 동·서양화 정예작가 초대전, 90년 예술의 전당미술관 개관 기념전의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을 열었으며 75년~77년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 현대미술전 및 79년~84년 프랑스 파리의 Art Sacre Art & Matiere Expression Spirituelle 초대, 79년에서 85년 프랑스 파리에서 Comparaisons전 등의 국제전을 가졌다.

제 3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및 Association Belgo-Hispanica Belgique 왕족상의 다수를 수상했다.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 •

여성문제연구회 100명	1,000,000원
류옥수	50,000원
차 윤	10,000원
정순옥	10,000원
최보배	10,000원
노순남	10,000원
변원순	10,000원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 부회 부회 서기 서기	회장 회장 회장 이사 이사	김이 박정 이최 강인	경연 영연 연옥 희순	오숙 혜심 기순 자	회계 감 조 재	이 관 리 위 원 장 위 원	사 사 사 장 장 장	이 양 김 정 현	요 은 경 영 순	식 숙 애 숙 자 덕	출판 공보 위원 장 소 사	관 계 위 원 장 보 호 연구 위원 장	서 은 경 회 이 정 자 애 주 래
-----------------------------	----------------------------	----------------------	----------------------	---------------------	-------------------	--------------------------------------	----------------------------	-----------------------	-----------------------	----------------------------	-------------------------------	--	--

회 원 단 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중구 쌍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귀옥자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한국여학사협회	김영자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안선아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김희복	성북구 모은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박애주	중구 영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이정자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염노미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오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성북구 모은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박동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507호	784-4851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곽순덕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음협회	이운정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53-9 남옥치과 1층	(042)252-7033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제여성총연합회	현은덕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아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서은경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603호	842-2466
국제여성승공연합회	문수자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숙향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고기효	동대문구 진봉4동 582-5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숙	성동구 용답동 236-10 신포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박정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회	박상민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807호	736-5350
한·일여성친선협회	박정자	중구 북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광진구 화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윤송자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라성숙	강남구 논현동 192-6 범한빌딩 3층	545-6789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요주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2층 1호	738-5586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보경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기호	강서구 동촌동 645-11	3662-9417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오세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한국과학연구소	(042)860-7663
한국생활공예협회	임기선	용산구 원효로 1가 116-2 지산빌딩 3층	3272-2130

협 동 회 원 단 체

협 동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기숙	인천광역시 중구 신성동 2-42 신포동 동사무소 3층	032-763-8354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은종인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전북여성회관 3층	0652-76-9675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선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회관	0331-39-8813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은숙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2동 484-21 여성회관 2층	042-532-1610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윤병길	춘천시 효자 2동 333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내	0361-262-1306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라정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	0431-55-7222

편집후기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두 명을 비롯, 전국구까지 아홉 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전체 국회의원 299명중 3%의 여성의원들이 15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여성국회의원 세계 평균치인 11%에 크게 못미치는 숫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국민의 대변자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6년 5월호 통권340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이연숙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식 · 편집 : 한라기획

발행날짜 : 1996년 5월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대) 794-4560, 794-4450~1, 794-4766~7,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서은경

위 원 :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 이선영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4-4560



“행복한 근로자”

안전함과 생명이 연결되는 행복의 바탕에 산업-노동-생활의 근로자를 단속해왔습니다. 항상에는 사람과 풍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 새로 문화에는 전문적 서비스 집합을 통한 참된, 가로 문화에는 보다 나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하계지향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정신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업자의 열정을 담았습니다.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 근로복지공단이 만들어갑니다

1,200만 근로자 여러분의 마음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1,200만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공공 근로복지 증진사업을 비롯해 산재보험의 보상과 징수 업무는 물론 산재 근로자의 요양, 휴양,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 여러분이 흘리는 땀의 소중한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꿈이 있는 일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심하고 일하세요!
산 재 보 험

근로자의 복
지 복 권

교육·휴양
근로복지장학금

함께하는 밝은미래
젊은우리들

근로자의 문화·취미
근로자문화예술제

사랑스런 우리아이
근로복지어린이집

행복을향해!
근로복지에식홀

스포츠 오게인!
근로복지스포츠센터

우리가족 솔씨자랑
근로자백일장

사랑공존
근로복지아파트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

근로복지공단



가족처럼 모시는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서울본부지

부산본부

부산본부지

대구본부

대구본부지

대전본부

대전본부지

충청본부

충청본부지

경북본부

경북본부지

경남본부

경남본부지

전라본부

전라본부지

전남본부

전남본부지

제주본부

제주본부지

서울본부지

서울본부지

부산본부지

부산본부지

대구본부지

대구본부지

대전본부지

대전본부지

충청본부지

충청본부지

경북본부지

경북본부지

경남본부지

경남본부지

전라본부지

전라본부지

전남본부지

전남본부지